

도시 양옥지구의 綠環境에 관한 연구
- 대구시 양옥주택의 옥외공간 이용행태 및 역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Green Environment of Western-style House Districts in City
- Focused on the Behaviors and a Role of Outside Space -

김준식 * 김익환 **
Kim, Joon-Sik Kim, Ick-Hwan

Abstract

This paper is to clarify a cognitive structure and behaviors of the green environment creation in the Western-Style residential areas.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analysis; 1) Regarding the outside space of houses, yard and garden are differently recognized. While various behaviors are carried out in the yard, the garden is recognized as a space to construct green environment. 2) Most residents of Western-Style houses construct the outside space as a green space, and grow plants and flowers to enjoy their beauties. However they have introvert view of green environment. 3) The roles of outside space use a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the cognitive structures on the green environment creation are different from group to group.

Keywords : Western-style houses, Green environment, Cognitive Structure, Behaviors and role of outside space

1. 서 론

1. 연구의 목적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제반계획의 목표 중 쾌적성 확보는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도시민이 인식하는 녹지의 양(量)은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주요 척도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각 도시는 도시내 녹지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과 정책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문적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녹지정책은 주로 도시계획 수립시 부문별 계획으로서 '공원, 녹지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학문적 연구 또한 공원 면적 확대를 통한 녹지율 확보와 공원의 이용을 제고를 위한 공원,

녹지계획 연구에 한정하고 있다.

도시내의 녹지는 이러한 도시 녹지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공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녹지공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지에 형성된 녹공간은 도시민이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녹환경이자 자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주택지의 녹공간은 도시내의 녹지축 형성에 있어서 일차적 요소이며 도시환경의 쾌적성 향상을 위한 기본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도시환경 창출의 일환으로서 도시 주택지에 있어서 녹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학문적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정원설계를 위한 구성개념 및 요소, 경관요소 등에 관

*정회원,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정회원, 금오공과대학교 건축전공 교수, 공학박사
본 연구는 2001년도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지금까지의 조경계획, 환경계획 연구는 주로 거시적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그 중 정원에 관한 연구로서는 설계방향 및 구성개념 제시(엄봉훈, 1988), 정원활성화를 위한 방안(이용인, 1988), 전통성 구현을 위한 설계방법(이재근, 1991), 정원의 공간구성과 경관요소 연구(윤영환, 1990) 등을 들 수 있다.

한 연구로서 주로 조경, 조원학 분야 연구에 한정하고 있으며 정원을 포함한 주택지 녹공간에 대해 주민의 인식구조로부터 녹환경 가치평가에 주목한 연구는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녹공간의 효용적 가치가 쾌적성이라든지 윤택함 등과 같이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작용에 의해 그 가치가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도시 양육 주택지를 대상으로 옥외공간에 대한 인식구조 및 이용행태에 대해 분석하고 옥외공간 역할의 중요도 평가구조로부터 거주자를 유형화하여 유형별 녹환경 조성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금후, 도시 주택지 녹지계획에 있어서 기초적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서는 대구시의 기성 시가지 내 형성된 양육주택지 중 70년대 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조성된 수성구 중동의 양육주택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연구대상으로 한 양육은 주택분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나 1972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목조건물 신축이 금지되면서 60년대까지 도시주택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던 도시형 한옥주택에 대한 대체주택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주생활 양식의 변화에 대응한 소위 서구형 평면 style을 도입한 것으로 오늘날 다가구 거주형 단독주택으로 발전하여 도시 대중주택의 전형적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연구의 방법으로서의 양육주택의 옥외공간에 대한 이용행태 및 역할에 주목하여 녹환경 조성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옥외공간에 대한 인식구조 및 이용행태, 녹환경 조성에 대해 분석하고, 옥외공간의 역할에 대한 중요도 평가로부터 거주자를 군집화하고 그룹별 녹환경 조성과 주택지 이미지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양육지구에 내재된 녹환경 조성에 관한 행태 및 인식구조를 규명하였다.

조사방법은 가능한 한 세대주 및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1차조사(2001년 7.5~7.12) 및 2차조사(2001년 10.20~10.25)로 나누어 실시하고 얻어진 회답(回答) 총 121부는 SPSS 10.1 K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 조사대상의 특성

1. 조사대상지의 환경적 특성

본 조사대상지는 1970년대 들어 급속한 도시화 현상에 의한 도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72년 4월 10일부터 1978년 5월 16일까지 약 6년 간에 걸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조성된 주택지구이다. 사면이 도시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의해 둘러싸인 면적 약 25 ha의 양육지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내부는 격자형 도로망을 가진 일정한 패턴의 가구(街區)를 형성하고 있고 어린이공원 및 소필지(小筆地)위주의 주택이 배치되어 있다.

주택규모는 대지 210 m² 전후에 연면적 100 m²-180 m²의 2층 주택이 대부분이다. 하나의 가구(街區)를 형성하는 도로폭은 8m이며 가구 내부의 장변방향으로 세로(細路)를 두어 각 세대와 접근시키고 있다. 이러한 도로는 오늘날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골목길 녹공간 조성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택은 옥외공간에 화단이나 정원을 꾸며 녹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발코니 및 2층 베란다에 화분 등을 두어 마당 뿐만 아니라 건물 부부까지 녹환경을 조성한 세대가 눈에 많이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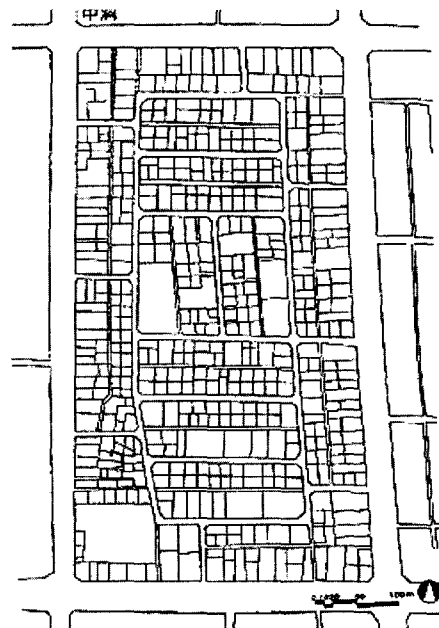


그림 1. 조사대상지의 지적도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표 1)에서 연령은 20대가 2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와 40대가 20.7%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50대가 19.8%, 60대가 13.2%순으로 조사되었으나 연령대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직업별 분포는 주부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원, 공무원 등이 23.7%로 나타났고 그밖에 학생이 14%, 무직 2.6%, 기능직 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대의 연수입은 2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부터 4000만원 미만, 6000만원 미만, 8000만원 미만의 각 집단에서 각각 2할 이상을 점하며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거주속성에서 주택소유 구분은 자가의 경우가

표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변인	집단	빈도 (%)
개인 속성	연령	20대	31 (25.6)
		30대	25 (20.7)
		40대	25 (20.7)
		50대	24 (19.8)
		60대	16 (13.2)
		소 계	121 (100.0)
	직업	자영업	20 (17.5)
		회사원, 공무원	27 (23.7)
		주부	38 (33.3)
		자유업	8 (7.0)
		학생	16 (14.0)
		기능직	2 (1.8)
		무직	3 (2.6)
		소 계	114 (100.0)
	연수입	~ 2000만원 미만	21 (20.4)
		2000 ~ 4000만원 미만	24 (23.3)
		4000 ~ 6000만원 미만	24 (23.3)
		6000 ~ 8000만원 미만	28 (27.2)
		8000만원 이상	6 (5.8)
		소 계	103 (100.0)
	거주 속성	주택 소유	자가
전세·월세			15 (12.9)
소 계			116 (100.0)
거주 년수		20년 이상	7 (5.9)
		10 ~ 20년	47 (39.2)
		5 ~ 10년	42 (35.0)
		5년미만	24 (20.0)
		소 계	120 (100.0)

가 87.1%로 월등히 높게 나타난 반면, 전세, 월세의 경우가 12.9%를 차지하고 있었다. 현 주택에서의 거주년수를 살펴보면 10-20년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10년의 거주년수를 가진층이 35%로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5년 미만도 20%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20년 이상은 5.9%로 극히 소수층을 형성하고 있다.

III. 옥외공간 인식구조 및 녹환경 조성

1. 옥외공간 인식구조 및 이용행태

도시 양육지구 거주자들이 옥외공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마당과 정원공간으로 구분하여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였으며 옥외공간에 대한 이용행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1) 옥외공간에 대한 인식

먼저 마당공간에 대해 물은 결과, ‘여러가지 집안 일이나 통로를 위해 비워둔 공간’(30.0%), ‘물품보관이나 증축을 위해 비워둔 공간’(29.2%), ‘약간의 나무·꽃 등의 식물을 심어 놓는 공간’(24.2%), ‘정원을 포함한 옥외의 전체공간’(16.6%)으로 각각 인식하고 있으며, 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한가지의 개념으로 설명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나 일상생활을 위해 비워둔 공간이 약 6할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정원에 대해서는 ‘마당에 잔디를 심고 식물과 정원석, 연못 등으로 꾸민공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57.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마당 일부에 화단을 만들어 나무나 꽃 등의 식물을 심어 놓는 공간’(25.8%), ‘마당을 나무나 꽃 등으로 꾸민

표 2. 옥외공간에 대한 인식

구분	내용	빈도(%)
마당	집안일이나 통로를 위해 비워둔 공간	36(30.0)
	물품보관, 증축을 위해 비워둔 공간	35(29.2)
	약간의 나무, 꽃등이 심어져있는 공간	29(24.2)
	정원을 포함한 옥외 전체 공간	20(16.6)
	소 계	120(100)
정원	잔디, 정원석, 연못 등으로 꾸민	69(57.5)
	마당 일부 화단조성 나무, 꽃을 심음	31(25.8)
	마당을 나무나 꽃으로 꾸민공간	14(11.7)
	나무 꽃을 심고 텃밭으로 만든 공간	6(5.0)
	소 계	120(100)

공간'(11.7%)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양옥주택에 있어서 옥외공간은 마당과 정원이 혼재하고 있지만 상호간 개념은 다르다. 즉 마당은 일상생활을 위해 비워져있는 공간으로서 전통적 마당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정원은 녹환경 요소등으로 잘 꾸며진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마당에 대해 녹공간으로서 인식(약 4할) 도 비교적 강하며 오늘날 도시단독주택이 재래의 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내향적 구조에서 건물만을 중시하는 외향적 구조로 변모됨에 따라 마당의 의미와 기능은 변화하고 있으며²⁾ 앞으로 마당의 의미와 기능은 점차 정원개념으로 변용되어 갈 것³⁾으로 볼 때 녹공간으로서 옥외공간의 역할이 보다 중시될 것으로 보여진다.

2) 옥외공간 이용행태

옥외공간의 이용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이용 여부를 물은 결과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화분을 설치하여 감상한다' '꽃·나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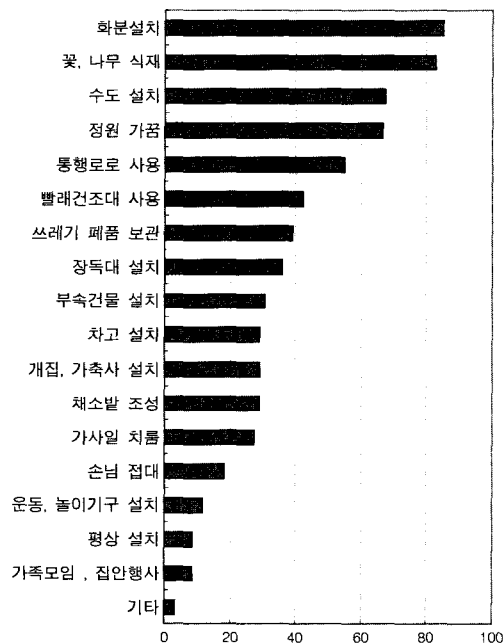


그림 2. 옥외공간 이용행태

을 심어놓고 감상한다'의 항목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옥외공간이 녹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조망하고 휴식하는 장소로서 이용도가 극히 높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빨래건조대를 설치하였다', '쓰레기·폐품 등을 보관하고 있다', '장독대, 김장독을 두고 있다' 등의 항목에 대해 각기 30% 이상 응답한 것으로 보아 옥외공간이 가사일을 처리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화장실, 차고 등 부속건물을 지었다', '차고를 설치하였다', '개집등 가족사를 두었다', '채소밭을 만들었다', '여러 가지 가사일을 한다' 등의 항목에도 각각 20% 이상 응답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마당의 기능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손님을 접대한다', '운동 놀이기구를 설치하였다', '평상을 두고 있다', '가족모임, 집안행사 등을 한다' 등의 항목에서는 낮게 나타나 외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손님접대, 가족 모임 등 파티 장소로서 혹은 레저나 취미생활로서 이용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옥외공간 이용행태에서 응답율이 높은 녹환경 조성과 관련한 항목에 대해 개인속성 및 거주속성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3)

먼저, '꽃 나무 등을 심어 놓고 감상한다'는 직업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화분을 설치하여 감상한다'의 경우는 연령, 주택소유, 거주년수와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원 가꾸는 일을 즐긴다'는 연령, 수입, 주택소유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화분을 설치해서 감상하는 소위「소극적인 녹환경파」와 정원을 실제로 가꾸는 「적극파」에 대해 보면, 연령에서는 30대의 청년층이, 주택 소유관계는 자가(自家)이며 10~20년의 거주년수를 가진 층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녹환경 조성(높은 집단)

독립 종속	개인적 속성			거주속성	
	연령	직업	수입	주택소유	거주년수
화분설치	30대*	-	-	자가***	10-20년**
꽃, 나무 식재	-	white color*	-	-	-
정원 가꾸	50대이상*	-	고소득층**	자가**	-

* P<.05 ** P<.01 *** P<.001

2) 임창복(1988), 한국도시 단독주택의 유형적 지속성과 변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p.97.

3) 윤재웅(1996), 도시단독주택 마당의 변용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7(1).

이 화분을 설치해서 감상하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반해 50대 이상의 비교적 높은 연령층에 년수입 6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으로서 자가의 경우가 정원을 가꾸어 즐기는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계층간에는 자가(自家)라는 공통점 외에 각기 다른 속성들을 발견할 수 있으나 장년층이 젊은층에 비해 녹환경 조성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2. 옥외공간 녹환경 조성실태 및 의향

도시 양육지구의 현재 녹환경 조성실태 및 조성이유와 녹환경에 대한 미래의 조성의향을 마당과 골목으로 나누어서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조성공간에 대해서 마당에 화초나 수목을 식재하여 녹공간으로 조성하는 세대가 전체의 75.2%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베란다에 녹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세대가 57%로 비교적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담장 위(19%)와 옥상(18.2%), 대문위(14%)에 녹환경을 조성하는 경우가 각각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당이 주택내의 녹공간 조성장소로서 중요시되며 그 활용정도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녹환경을 조성하는 이유로는 ‘보고 즐기기 위해서’(77.7%)가 가장 많았으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0.8%)는 극소수에 불과 하였다. 한편, 마당에 대한 녹환경의 조성의향을 보면 ‘마당의 일부를 화단 등으로 꾸미고 싶다’(44.5%)와 ‘마당전체를 정원으로 꾸미고 싶다’(42%)는 측이 각각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마당에 대한 녹환경 조성실태(75.2%)에 비해 보다 많은 세대(86.5%)가 마당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정원을 꾸미고자하는 강한 의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주택지 골목에 대한 녹환경 조성의향은 ‘대문밖에 꽃, 나무등을 심는다’(35.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담장따라 화단을 설치한다’(22.3%)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마당에 나무를 심어 담장 밖에서 보이게 한다’(9.9%)의 응답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부터 주택 외부공간인 골목길의 녹환경 조성에도 조사대상자의 과반수가 강한 의향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상에서 옥외공간에 대한 녹환경 조성의향은 매우 강하며 주택지 공간인 골목에 대해서도 비교적 강한 조성의향을 보인다. 그러나 녹환경 조성이 마당을 중심으로 스스로의 관상을 조성이유로 하고있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나 담장 밖에서 보이게 하는 경우가 극히 적은 것으로부터 보다 내향적인 녹(綠)환경관을 가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IV. 옥외공간 역할과 녹환경 조성

본 장에서는 옥외공간의 역할에 있어서 중요도에 대해 5단계 평정척도(매우중요치 않음 1점 - 매우중요함 5점)에 의한 평가를 통하여 이를 유형화하고 각 그룹별 녹환경 조성과 주택지의 이미지평가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표 4. 녹환경 조성실태 및 의향 *다중응답임

구분	그룹	N(%)
조성 공간*	마당	91(75.2)
	베란다	69(57.0)
	옥상	22(18.2)
	대문 위	17(14.0)
	담장 위	23(19.0)
	소 계	222(-)
조성 이유	보고 즐기기 위해94(77.7)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1(0.8)
	자신의 집을 돌보이게 하기 위해	16(13.2)
	이사 올 때부터 있었다	5(4.1)
	기 타	5(4.1)
	소 계	121(100)
조성 의향 (마당)	마당 전체를 정원으로 꾸미고 싶다	50(42.0)
	마당 일부를 화단으로 꾸미고 싶다	53(44.5)
	텃밭으로 만들고 싶다	4(3.4)
	다 용도로 활용키 위해 비워둔다	9(7.6)
	통로로만 사용한다	1(0.8)
	기 타	2(1.7)
소 계	119(100)	
조성 의향 (골목)	담장따라 화단을 설치한다	27(22.3)
	담장 밖에서 보이게 한다	12(9.9)
	옥상 등 높은 곳에 화분을 둔다	36(29.8)
	대문밖에 꽃, 나무 등을 심는다	43(35.5)
	기 타	3(2.5)
	소 계	121(100)

1. 옥외공간 역할의 중요도평가

1) 중요도 평가

주택의 옥외공간이 ‘나무나 꽃 등 식물을 가꾸는 장소’(4.36) 즉, 녹환경 조성장소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었으며, 이는 앞서 행한 옥외공간의 인식구조 및 이용행태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도시 양육 거주자들의 녹공간 조성에 대한 강한 욕구를 엿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햇볕과 바람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4.09)라는 응답으로 보아 일사 조건과 통풍 등 자연 환경을 조절하여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휴식을 취하는 장소’(3.84), ‘통행로’, ‘세탁, 건조, 김장 등 가사작업 장소’, ‘놀이 및 운동장소’ 등 다양한 마당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아 전통적인 마당의 의미나 기능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손님접대, 가족 모임 및 파티 장소’로서의 역할과 ‘창고등 건물지을 장소’ 등 부대시설을 짓기 위한 유희(遊休)공간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은 낮게 조사되었으며 이는 이용행태와도 거의 일치한다.

2) 중요도 평가구조의 유형화

옥외공간 역할의 중요도 평가 항목을 유형화하기 위해 주성분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여기서 얻어진 인자특점을 이용하여 군집분석(ward method)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4개의 그룹으로 군집화 되었다. 군집화 하는 과정에서 무응답 처리되거나 군집화 하기에 곤란한 18사례를 제외하였다.

표 5. 옥외공간 역할의 중요도평가

항 목	평균
세탁, 건조, 김장 등 가사작업	3.48
손님접대·가족 모임 및 파티장소	2.71
쓰레기 및 폐품 보관장소	2.79
나무나 꽃 등 식물을 가꾸는 장소	4.36
채소가꾸는 장소	3.01
놀이 및 운동 장소	3.29
화장실, 창고 등 건물을 지을 장소	2.45
가축을 기르는 곳	2.25
통행로	3.60
햇볕과 바람이 잘들게 하기 위해	4.09
휴식을 취하는 장소	3.84
집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장소	4.01

표 6. 각 그룹유형별 평균값

평가항목	여가공간 중시파	생활공간 경시파	생활공간 중시파	녹공간 중시파
당연히 있어야 할장소	4.21	3.31	4.46	4.06
햇볕, 바람이 잘들게	3.80	3.38	4.67	4.27
휴식 취하는 장소	4.50	2.88	4.30	3.82
식물 가꾸는 장소	4.55	3.65	4.50	4.70
채소 가꾸는 장소	2.65	2.58	3.25	3.30
놀이, 운동 장소	3.48	2.85	3.71	2.85
김장 등 가사작업장	2.85	3.08	3.88	3.79
폐품 보관장소	1.80	2.92	3.04	3.06
통행로	2.80	3.38	3.54	4.12
손님접대, 파티장소	3.55	2.19	3.00	2.48
창고등 건물 지을 장소	2.10	2.88	3.13	1.79
가축 기르는 곳	1.85	2.38	3.13	1.85

제1그룹은 ‘휴식을 취하는 장소’, ‘놀이 및 운동하는 장소’, ‘손님접대·가족모임 및 파티장소’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는 집단으로 「여가 공간 중시파」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사례수의 19.4%를 차지한다.

제2그룹은 모든 항목에 대해 중요성이 낮은 집단으로 「생활공간 경시파」로 명명하였으며 전체사례수의 25.3%를 차지한다.

제3그룹은 ‘집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장소’, ‘햇볕과 바람이 잘 들게 하기 위한 장소’, ‘놀이 및 운동장소’, ‘세탁·건조·김장’ 등 가사작업장, ‘화장실, 창고 등 건물을 지을 장소’, ‘가축을 기르는 장소’ 등의 항목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으로 「생활공간 중시파」로 명명하였으며 전체사례수의 23.3%이다.

제4그룹은 ‘나무나 꽃 등 식물을 가꾸는 장소’, ‘채소가꾸는 장소’, ‘통행로’ 등의 항목에 중요성을 두는 집단으로 「녹공간 중시파」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사례수의 32.0%를 차지한다.

2. 유형별로 본 녹환경 조성

앞서 행한 옥외공간 역할의 중요도 평가로부터 그룹화된 4개 집단에 대해 각각 녹환경 조성과 주택지 이미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7, 그림 3과 같다.

1) 그룹별 녹환경 조성실태 및 의향

표 7에서와 같이 마당에 대해 녹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녹공간 중시파」가 50%로 가장 높고 「여가공

간 중시파」가 4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공간 중시파」는 31.3%로 가장 낮으며 이는 마당에서의 다양한 용도가 요구되는 것으로 볼 때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다.

조성이유로는 「생활공간 중시파」가 ‘보고 즐기기 위해’(83.3%)에 대해 높은 것으로부터 타 집단에 비해 매우 실용적인 성향을 띤다. 그러나 「여가공간 중시파」는 ‘자신의 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20%)에 대해 다른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조성의향에서 마당의 경우 「여가공간 중시파」의 경우 70.0%가 ‘마당 전체를 정원으로 꾸미고 싶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마당을 정원으로 꾸며 손님접대·가족모임 및 파티장소로 이용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녹공간 중시파」도 5할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생

활공간 경시파」와 「생활공간 중시파」는 ‘마당일부를 화단·화분으로 꾸미고 싶다’는 의향이 각각 5할 이상으로 다른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골목의 경우, 「녹공간 중시파」의 경우 ‘대문밖에 화분이나 꽃 나무등을 심는다’(51.5%)와 ‘담장따라 화단을 설치한다’(30.3%)에 대해 타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나 매우 외향적 경향이 강하며 주택지의 골목길 녹환경 조성에도 강한 의향을 비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그룹별 주택지의 이미지 평가 분석

여기서는 양육주택의 이미지평가를 행하여 앞서 행한 각 그룹별에 대해 주택지 이미지평가구조를 규명한다.

우선, 이미지 평가를 위해 ‘당신은 현 주택지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라고 하는 설문문을 통해 표 8에 나타내고 있는 15개의 형용사 쌍

표 7. 그룹 녹환경 조성실태 및 의향

()=% * 다중응답임

구분	내용	여가공간중시파	생활공간경시파	생활공간중시파	녹공간중시파
조성 공간*	마당	18(45.0)	19(40.4)	16(31.3)	31(50.0)
	베란다	13(32.5)	10(21.3)	20(39.2)	18(29.0)
	옥상	4(10.0)	6(12.8)	5(9.8)	4(6.5)
	대문 위	2(5.0)	8(17.0)	5(9.8)	2(3.2)
	담장 위	3(7.5)	4(8.5)	5(9.8)	7(11.3)
	소계	40(100)	47(100)	51(100)	62(100)
조성 이유	보고 즐기기 위해	14(70.0)	18(69.2)	20(83.3)	26(78.8)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1(5.0)	.	.	.
	자신의 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4(20.0)	2(7.7)	3(12.5)	5(15.2)
	이사 올 때부터 있었다	1(5.0)	3(11.5)	.	1(3.0)
	기 타	.	3(11.5)	1(4.2)	1(3.0)
	소계	20(100)	26(100)	24(100)	33(100)
조성의향 (마당)	마당 전체를 정원으로 꾸미고 싶다	14(70.0)	7(26.9)	10(41.7)	17(51.5)
	마당 일부를 화단등으로 꾸미고 싶다	4(20.0)	15(57.7)	13(54.2)	13(39.4)
	텃밭으로 만들고 싶다	.	1(3.8)	.	3(9.1)
	다용도로 활용키 위해 비워둔다	.	2(7.7)	1(4.2)	.
	통로로만 사용한다	.	1(3.8)	.	.
	기 타	2(10.0)	.	.	.
소계	20(100)	26(100)	24(100)	33(100)	
조성의향 (골목)	담장따라 화단을 설치한다	7(35.0)	7(26.9)	3(12.5)	10(30.3)
	담장 밖으로 보이게 한다	4(20.0)	4(15.4)	1(4.2)	3(9.1)
	옥상등 높은 곳에 화분을 둔다	5(25.0)	8(30.8)	10(41.7)	3(9.1)
	대문밖에 꽃, 나무 등을 심는다.	4(20.0)	6(23.1)	9(37.5)	17(51.5)
	기 타	.	1(3.8)	1(4.2)	.
소계	20(100)	26(100)	24(100)	33(100)	

표 8. 주택지 이미지 평가의 인자분석

평가항목	1인자	2인자	3인자	4인자
질이 나쁘다 - 질이 좋다	.713	-.052	.196	.395
알기 어렵다 - 알기 쉽다	.703	.063	.347	.159
오래되었다 - 새롭다	.680	.248	.050	-.072
불편하다 - 편리하다	.610	.238	-.225	.354
어둡다 - 밝다	.592	.310	.240	.025
매력없다 - 매력적이다	.496	.073	.354	.208
차갑다 - 따뜻하다	.167	.844	.135	.134
친하기 어렵다 - 친하기 쉽다	.146	.764	.239	-.134
위험하다 - 안전하다	.124	.631	-.133	.433
인공적이다 - 자연적이다	.018	.127	.722	-.205
더럽다 - 깨끗하다	.124	.401	.576	.169
복잡하다 - 간단하다	.316	-.067	.571	.257
확실적이다 - 다양하다	.314	.103	.536	.246
흩어져있다 - 모여있다	.216	.034	-.012	.783
시끄럽다 - 조용하다	.093	.146	.287	.750
고유치	4.80	1.56	1.46	1.02
누적기여율	32.00	42.67	52.41	59.24

(反義語)에 대한 5단계 평정척도에 의해 얻어진 회답을 득점화하여 인자분석을 행한 결과 4개의 인자가 추출되었다.

제1인자는 '질이 나쁘다-질이 좋다', '알기 어렵다-알기 쉽다', '오래되었다-새롭다'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 인자부하량이 크므로 이는 「격조성」을 나타내는 인자로, 제2인자는 '차갑다-따뜻하다', '친하기 어렵다-친하기 쉽다' 등의 평가항목으로부터 「친근성」을 나타내는 인자로 명명하였다. 제3인자는 '인공적이다-자연적이다', '더럽다-깨끗하다', '복잡하다-간단하다' 등의 평가항목의 인자부하량이 크므로 「쾌적성」을 대표하는 인자로 볼 수 있으며, 제4인자는 '흩어져있다-모여있다', '시끄럽다-조용하다'에 대한 인자 부하량이 크므로 이는 「안정성」을 나타내는 인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옥주택지에 대한 이미지 평가구조는 「격조성」, 「친근성」, 「쾌적성」, 「안정성」을 나타내는 인자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그룹별 주택지의 이미지평가에 대해 분석을 행한 것이 그림 3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격조성'의 경우 모든 그룹에서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친근성'은 평균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여가공간 중시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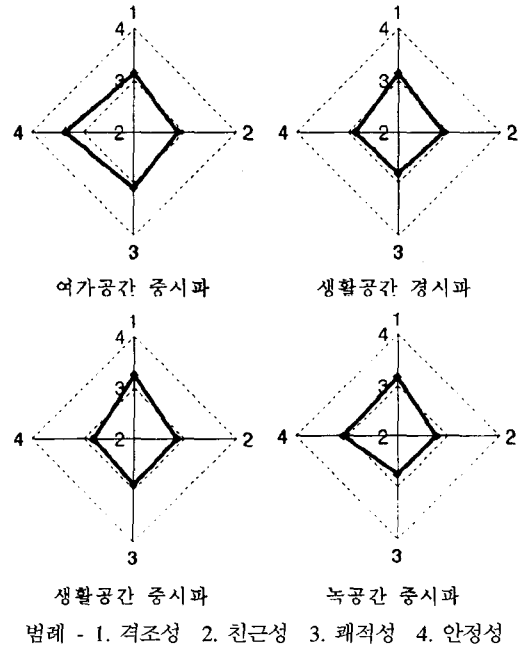


그림 3. 그룹별 주택지 이미지평가

경우, 다른 그룹에 비해 모든 인자에 대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공간 경시파」와 「생활공간 중시파」는 '격조성'을 제외한 모든 인자에서 평균값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상호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녹공간 중시파」의 경우 '친근성'과 '쾌적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여가공간 중시파」는 주택지에 대해 비교적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면, 「생활공간 중시파」는 주택지 이미지에 대해 낮게 평가 되고 있다. 특히 「녹공간 중시파」는 녹공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 녹환경과 관련한 이미지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보다 자연적 요소의 도입에 의한 친근성 및 쾌적성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주요 요소로 볼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대구시 양옥지구를 대상으로 옥외공간에 대한 인식 및 이용행태에 대해 분석하고 옥외공간 역할의 중요도 평가로부터 거주자를 유형화하여 유형별 녹환경 조성과 주택지의 이미지평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양육주택에 있어서 옥외공간은 마당과 정원이 혼재하고 있으나 마당은 일상생활을 위해 비워져 있는 공간으로서 전통적 기능을 가진 공간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정원은 단지 관상을 위해 식재된 녹공간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옥외공간 이용행태에서 8할 이상이 녹환경 조성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마당의 개념이 점차 정원개념으로 변용됨에 따라 녹공간으로서 옥외공간의 기능이 보다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주택지 녹공간이 도시 녹환경의 주요 요소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옥외공간이 도시 녹지계획에 있어서 주요과제로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옥외공간에 대한 녹환경 조성실태는 대부분 마당을 중심으로 스스로의 관상을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나 담장 밖에서 보여주기 위해 녹공간을 조성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로 나타나, 다소 내향적인 녹환경관(綠環境觀)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옥외공간 뿐만 아니라 주택지(골목)에 대한 녹환경 조성의향도 강한 만큼 지금의 폐쇄적 주택지 경관에 대해 보다 외향적이고 공개허용성 제고를 위한 주택지계획이 선결과제로 제기된다.

3) 옥외공간의 역할에 대한 중요도 평가 결과, 옥외공간이 전통적 가사작업 공간이나 휴식, 여가공간보다 녹환경 조성공간으로서 그 역할이 보다 중시되고 있으며 중요도 평가구조로부터 거주자를 유형화한 결과, 「여가공간 중시파」, 「생활공간 경시파」, 「생활공간 중시파」, 「녹공간 중시파」등 4개의 그룹으로 추출되었다.

4) 각 그룹별 녹환경 조성과의 관계를 보면 마당에서 다양한 행태가 이뤄지는 「생활공간 중시파」는 다른 그룹에 비해 마당을 녹공간으로 조성하는 경우가 적고 마당 일부를 녹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가공간 중시파」는 마당에서의 휴식, 단란을 위해 마당을 녹공간으로 조성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마당 전체를 정원으로 꾸미고자하는 의향도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녹공간 중시파」는 타 그룹에 비해 주택지(골목)에

대해 강한 조성의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녹환경조성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외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5) 그룹별 주택지 이미지평가와의 관계를 보면 「여가공간 중시파」의 경우, 모든 인자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생활공간 경시파」 및 「생활공간 중시파」, 「녹공간 중시파」는 격조성을 제외한 모든 인자에서 낮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녹공간 중시파」의 경우 녹환경 이미지와 관련한 친근성 및 쾌적성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으므로 자연적 요소의 적극적인 도입에 의한 이미지 제고가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주요한 계획적 요소로 제기된다.

이상에서 각 그룹별 녹환경조성에 관한 행태 및 이미지 평가구조는 달리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각 그룹별 분석 결과에 주목한 과제 해결이 요구되나 특히 「녹공간 중시파」의 경우, 보다 외향적이며 주택지 녹환경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그룹인 만큼, 이들의 행태 및 이미지 평가구조에 주목한 녹환경 계획이 우선적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임창복(1988), 한국 도시단독주택지의 유형적 지속성과 변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 진용재(1991), 도시주택지 골목공간의 장소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3. 윤재웅(1996), 도시단독주택 마당의 변용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7권 제1호.
4. 이용인(1988), 주택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조경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5. 이재근(1991), 한국정원의 전통성 구현을 위한 설계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19권 1호.
6. 정성희 외1(1995), 한국 전통정원에 대한 경관선호에 관한 비교 문화적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3(7).
7. 윤영환 외3(1990), 한국 전통마을의 공간구성과 민가정원양식, 한국조경학회지, 제18권 2호.
8. 박찬용 외1(1997), 도시주민의 녹지의식에 관한 연구, Journal of Resource Development 16(1).
9. 李榮大(1991), 韓日比較を中心とした都市居住地における住民の綠意識と評價に關する研究, 北海道대학 박사학위논문.
10. 増田昇外 3(1987), 日常生活行動領域における綠の Image 構造に關する研究造園雜誌, 50(5)
11. 大森基(1978), 住宅地環境評價構造における綠の役割, 日本都市計劃學會 학술연구발표논문집.